

윤리와사상

1. 정답 : ④

해설 :

가상 편지를 쓴 사상가는 순자이다. ① 순자는 인위적인 규범인 예에 따를 것을 강조하였다. ② 맹자, ③ 불교 사상에 대한 내용이다. ④ 순자는 악한 본성을 예로써 교화하여 바르게 살도록 해야 한다고 본다. ⑤ 순자는 욕구를 조절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2. 정답 : ①

해설 :

갑은 소크라테스, 을은 소피스트인 고르기아스이다. ① 소크라테스는 이성으로 보편적 진리를 얻기 위해서는 먼저 무지의 자각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② 소크라테스는 올바른 지식과 덕을 갖춘 사람은 반드시 행복해진다고 보았다. ③, ④ 고르기아스는 진리성의 객관성과 궁극적인 선의 존재를 부정하였다. ⑤ 소크라테스는 이성을 선악 판단의 근거로 보았다.

3. 정답 : ③

해설 :

제시문은 정약용의 입장이다. ㄱ. 정약용에 의하면 인간의 본성은 하늘의 이치가 아닌 마음의 경향성 이라고 보았다. ㄴ. 정약용은 자주지권을 통해 선을 행할 수도 악을 행할 수도 있다고 보았다. ㄷ. 정약용은 사덕은 본성에 내재된 것이 아니라 선한 행위의 실천을 통해 형성되는 것으로 보았다. ㄹ. 정약용은 형구의 기호는 생물적인 경향성이므로 인간과 동물이 모두 갖고 있다고 보았다.

4. 정답 : ④

해설 :

갑은 플라톤, 을은 아리스토텔레스이다. ① 플라톤은 욕구가 적절히 조절된 것도 행복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보았다. ② 아리스토텔레스의 입장이다. ③ 아리스토텔레스는 감정이 적절히 조절된 것도 덕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④ 아리스토텔레스는 유덕한 행위를 반복하여 습관화하면 의지의 나약함을 극복할 수 있다고 보았다. ⑤ 플라톤만의 입장이다.

5. 정답 : ③

해설 :

(가)는 불교 사상에 대한 내용이다. ③ 가로 낱말 (A)는 팔관회, (B)는 공정 (C)는 도덕경 다. 따라서 세로 낱말 (A)는 '팔경도'. ① 윤회, ② 사성제(四聖諦), ④ 인연생기, ⑤ 열반에 대한 불교의 주장이다.

6. 정답 : ⑤

해설 :

갑은 아퀴나스, 을은 아우구스티누스이다. ㄱ. 아퀴나스는 자연법이 이성으로 파악할 수 있으며 실정법의 근거가 된다고 보았다. ㄴ. 아퀴나스, 아우구스티누스의 공통 주장이다. ㄷ. 아우구스티누스는 신이 악을 창조하지 않았다고 보았다. ㄹ. 그리스도 교 사상가들의 공통 입장이다.

7. 정답 : ②

해설 :

갑은 이황, 을은 이이이다. ㉠ 이황은 이와 기의 발(發)을 모두 주장한다. ㉡ 이황은 인(仁)이라는 이치[理]가 발하여기가 따른 것을 측은지심으로 보았다. ㉢ 이이는 기만 발하고 이는 발하는 원인이라고 본다. ㉣ 이이는 사단과 칠정의 근원을 모두 기질지성으로 보았다. ㉤ 이황, 이이 모두 경의 실천을 강조하였다.

8. 정답 : ⑤

해설 :

갑은 노자, 을은 장자이다. ㄱ, ㄴ. 노자, 장자 모두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노자, 장자 모두 분별적 지혜와 인의의 덕을 경계하였다. ㄷ, ㄹ. 노자, 장자 모두 자연에 순응하는 삶과 소박한 삶을 강조하였다.

9. 정답 : ④

해설 :

갑은 주희, 을은 왕수인이다. ④ 주희, 왕수인 모두 양지를 타고난 도덕적 지식으로 보았다. ① 주희가 주장한 격물치지에 대한 해석이다. ② 주희는 기질을 교정할 것을 주장하였다. ③ 왕수인은 마음 밖에는 이치도 사물도 없다고 보았다. ⑤ 주희, 왕수인 모두 존천리거인욕을 인정하였다.

10. 정답 : ①

해설 :

갑은 매킨타이어, 을은 나딩스이다. ① 매킨타이어, 나딩스 모두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② 매킨타이어, 나딩스 모두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③ 매킨타이어가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④ 나딩스가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⑤ 매킨타이어, 나딩스 모두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11. 정답 : ②

해설 :

홍의 정치적 의무에 대한 입장이다. ② 홍은 정부가 안전과 보호라는 혜택을 개인들에게 제공하기 때문에 정부에 대한 복종의 의무가 생긴다고 보았다.

12. 정답 : ⑤

해설 :

갑은 지눌, 을은 원효이다. ㄱ. 지눌은 화두를 들고 이를 간파하는 선수행인 간화선을 강조하였다. ㄴ. 지눌은 선정을 참마음의 본체로, 지혜를 참마음의 작용으로 보았다. ㄷ. 원효의 아미타 신앙(정토 신앙)이다. ㄹ. 지눌과 원효의 공통 입장이다.

13. 정답 : ⑤

해설 :

갑은 루소, 을은 마르크스이다. ① 루소에 의하면 일반 의지에 복종하는 것은 개인의 소유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② 루소는 주권은 양도될 수 없으며, 집합체이므로 그 자체로서만 대표될 수 있다고 보았다. ③ 마르크스는 자본 축적은 계급 갈등을 심화시킨다고 보았다. ④ 자본주의 사회의 노동은 연속을 지속시킨다. ⑤ 루소, 마르크스 모두 사유 재산제가 인간 불평등의 기원이라고 보았다.

14. 정답 : ④

해설 :

갑은 데카르트, 을은 스피노자이다. ㄱ. 데카르트는 사유하는 나의 존재는 결코 의심할 수 없다고 보았다. ㄴ. 스피노자는 참된 행복이 자연의 인과적 필연성을 이성으로 인식하는 데서 나온다고 보았다. ㄷ. 스피노자는 유일한 실체인 신은 곧 자연이라고 보았다. ㄹ. 데카르트, 스피노자의 공통 입장이다.

15. 정답 : ③

해설 :

갑은 벤담, 을은 칸트이다. ㄱ. 벤담은 쾌락의 질적 차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ㄴ. 벤담만의 주장이다. 칸트는 보편적 도덕 원리를 준수하는 것이 행복을 가져올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보았다. ㄷ. 벤담은 공리성의 원리를, 칸트는 도덕 법칙을 객관적 원리로 보았다.

16. 정답 : ③

해설 :

갑은 에피쿠로스, 을은 스토아 학파인 아우렐리우스이다. ① 에피쿠로스에 의하면 아타락시아가 진정한 정신적 쾌락의 상태라고 보았다. ② 에피쿠로스에 의하면 죽음은 감각적으로 경험할 수 없다. ③ 아우렐리우스는 불행이 지나친 감정인 정념으로부터 나온다고 보았다. ④ 스토아 학파는 운명에 순응할 것을 강조하였다. ⑤ 에피쿠로스, 아우렐리우스 모두 자연에 따를 것을 강조하였다.

17. 정답 : ②

해설 :

갑은 롤스, 을은 노직이다. ㄱ. 롤스, 마르크스 모두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ㄴ. 롤스는 차등의 원칙을 통해 최소 수혜자의 몫을 증진시킬 수 있으므로 자연적 우연성의 영향을 줄일 수 있다고 보았다. ㄷ. 노직에 의하면 시정 또는 교정은 본래의 정당한 소유권자에게 재화를 되돌려 주는 행위이므로 개인의 소유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다. ㄹ. 노직은 소유 권리의 취득과 이전의 과정이 정당하면 그 결과 재화의 불평등 분배가 생겨도 정당한 것으로 보았다.

18. 정답 : ①

해설 :

갑은 키르케고르, 을은 하이데거이다. ① 키르케고르는 신에게 귀의할 때 완전한 실존을 얻을 수 있다고 보았다. ② 키르케고르에 의하면 심미적 단계는 감각적 쾌락을 추구하는 단계이다. ③ 하이데거의 현 존재의 특징에 대한 설명이다. ④ 하이데거에 의하면 불안은 주체적 삶을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⑤ 키르케고르, 하이데거의 공통 입장이다.

19. 정답 : ④

해설 :

갑은 원불교의 박중빈, 을은 동학의 최제우이다. ① 원불교는 생활 불교를 표방한다. ② 원불교의 영육쌍전(靈肉雙全)이다. ③ 동학은 하느님을 모셔라는 시천주를 강조한다. ④ 동도서기의 입장이다. 동학은 경천 사상을 기반으로 유교, 불교, 도교를 부분적으로 수용하였다. ⑤ 후천개벽은 원불교와 동학의 공통 입장이다.

20. 정답 : ⑤

해설 :

(가)는 민주 사회주의, (나)는 신자유주의의 주장이다. ① 민주 사회주의에서는 공유 재산을 원칙으로 하되 부분적으로 사유 재산도 인정한다. ② 민주 사회주의에서는 필요에 다른 분배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되, 능력에 따른 분배도 인정한다. ③ 신자유주의에서는 복지 정책을 축소할 것을 강조한다. ④ 신자유주의에서는 규제 완화 정책을 통해 민간의 자율적 능력이 발휘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⑤ 시장의 경쟁 원 리에 대해 민주 사회주의는 부분적으로, 신자유주의 의는 적극적으로 인정한다.